

장수군 문화유산 즐비 ‘산서면 오메마을’ 국가등록 민속마을 추진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인동권씨 등 5개 성씨 집성촌 이뤄

정재근 기자(=장수) | 2024.04.09. 16:09:2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향토문화유산이 즐비한 ‘산서면 오메마을’을 국가등록 민속마을로 지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8일 장수군 산서면은 최길환 산서면장을 비롯한 마을이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해움문화재연구원(원장 오수민)으로부터 오메마을에 대한 특징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마을의 전통풍습 등을 공유했다.

산서면 오산리에는 안동권씨를 주축으로 광산김씨, 남원양씨, 동래정씨, 옥천육씨들이 모여 사는 오메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장수군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메마을은 장수 영대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를 담고, 칠봉산에 서린 정기를 받고 있다. 또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끼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 마을에는 권희문가옥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을 비롯해 효자 임옥산정려각(장수군 향토문화유산), 열녀 남평문씨 정려각, 화산영당 등 우수의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넓은 평야를 지니고 있어 마을주민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다.

전통음식인 점주, 가화주, 접장, 정과, 김부각 등의 음식문화가 발달했으며 매년 지신밟기를 개최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자리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산서 오메마을은 전통가치와 풍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로 향후 국가등록 민속마을 지정을 추진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